

2019년 6월 21일 금요일 (음 5월 19일)

선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에인 앤웨 의위 원장 곽 경 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전주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교육계 '파장'예고

제2315호

도교육청,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 진행 상산고, 79.61점으로 기준점 80점에서 미달 군산중앙고, 지정 취소 신청서 제출 절차 진행 교육감 취소 결정시 공은 교육부로 넘어가 총동창회 "교육청 결과 수용 못해 강력 대응" 교육청 "현 규정대로 진행 피해 최소화 최선"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0 일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산고등학교가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결과 79.61점을 얻어 취소 절차 에 들어간다"고 밝혀 교육계에 파 장이 예상되고 있다

전북지역 자율형사립고인 상산고 등학교가 운영성과 평가결과 79.61 점을 얻어 재지정 기준점(80점)에 서 0.39점 미달로 자사고 지정 취소 위기에 몰렸다. 한편, 군산중앙고등 학교는 학교법인 광동학원의 지정 취소 신청에 따라 향후 자사고 지 정 취소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20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인 19일 '전라북도 자율학교 등 지 정 · 운영위원회 를 열고, 상산고와 군산중앙고의 심의 결과 자사고 지 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 자 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했다고 밝

상산고는 전북도 자체평가단이 지 난 4월4일~5일 사이에 서면평가를 실시했고, 4월15일에 현장평가, 5월 17일에 학교 만족도 온라인 설문조 사를 완료한 결과 총 79.61점을 얻 었으나 자사고 지정 취소 기준점에 미달했다.

또한 군산중앙고는 학교법인 광동 학원에서 지난 6월14일에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

자율형시립고는 5년마다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가 정해진 다. 올 1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공동으로 재지정 평가지표를 만들 었다. 재지정 기준은 '70점' 인데 전 북교육청만 기준점 '80점'을 제시 했다. 이후 3월부터 진행해 온 재지 정 평가에서 상산고는 0.39점 모자 란 79.61점을 받았다. 이에 상산고 측과 학부모들은 형평성에 어긋나 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감의 취소 결정시 공은 교육 부로 넘어간다. 유은혜 교육부장관 은 상산고 상황이 적절한 지 판단 을 내려야 한다.

상산고등학교는 2003년 자사고 지 정 후 16년 만에 일반고 전환 위기 에 몰렸다. 기준점에 0.39점 모자란 79.61점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는 31개 평가지표 중 입학전형 운영 적정성, 교비 회계,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10% 선발 등에서 기준점에

상산고등학교 관계지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부칙 제5조에서는 1 기 자사고(자립형 사립고에서 자율 형 시립고로 전환한 자사고)는 사 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의무 조항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으로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다며 부당성 을 밝혔다.

또한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평가 결과 발표내용이 형평성, 공정성과 적법성에 크게 어긋남에 따라 이를 전면 거부함과 동시에 그 부당성을 바로잡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펼쳐



20일 전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허 영민 학교교육과장이 상산고와 군산 중앙고 2곳의 자사고 취소에 대해 발

나 갈 것이다"고 말했다.

상산고 총동창회에서도 성명서를 내고 "우리는 오늘 발표된 전북교 육청 결과를 결코 수용할 수 없 다"며, "이번 평가는 '자사고 폐 지'만을 위한 짜맞추기 수순과 편 법이었다"며 강력한 대응의지를 밝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현행 규정 대로 진행한 것이다"고 재차 강조 하며, "이번 사태로 인해 상산고 재 학생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 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향후 일정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교 육감이 지정하는 청문주재자가 7월 초 청문을 실시하고, 7월 중순경 교 육부장관의 동의를 요청할 계획이 다. 교육부장관의 자사고 취소 동 의를 얻어 8월 초 고입전형기본계 획을 수정하고, 9월 중순경 2020학 년도 평준화 일반고 전형요강을 공 고할 예정이다.

한편, 상산고 재지정 평가결과는 전국 자사고 24곳 중 첫번째 발표 로 다음 달 초까지 순차적으로 발 /장은성 기자 표 할 예정이다.



한-러 협력 심화와 새로운 방향… KIEF-ERI 공동 국제세미나

20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 한국과 러시아 협력 심화와 새로운 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14차 KIEF-ERI 공동 국제세미나에 송하진 도지사와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도내 제조업 활력 'UP'

전북도, 정부 전략 대응 혁신성장 방향 제시

스마트화 등 산업지능화 신재생에너지 분야 선점 신산업 발굴 · 육성 전력 산업구조 개편 가속화 등

전북도는 19일 정부의 '제조업 르네 상스 비전 및 전략 발표에 대응해 '전북도 제조업 활력 제고 및 혁신성 장 방향 을 제시했다.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고용 창출 의 원동력이자 지역경제에서 차지하 는 비중이 큰 제조업 부흥에 도정 역 량 집중을 강화해 지역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 지향적 산업생태계 조 성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먼저 제조업의 스마트화ㆍ친환경화 로 산업 지능화를 본격 추진하고 관련 산업 선점에 나선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내 중소· 중견기업의 애로해소 및 생산성과 품 질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난 5월 발표 된 제조현장 스마트화 추진계획에 따 라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을 차 질 없이 추진한다.

올 하반기에는 14개 시군 사업설명 회를 실시해 도내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며, 스마트공장

배움터가 준공되는 9월에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이 실시된

내년에는 구축 목표수를 늘려 공급 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비 지원 또한 20~30%로 확대해 제조업 스마 트화를 촉진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해 환경 친화적인 발전 단지 조성과 함께 에너지 인프라를 확충하고 수소경제로의 이행을 선도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와 에너 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 등을 통해 에 너지 관련산업 및 연구인프라를 집적 하고, 이와 연계한 에너지 산업간 융 합을 통한 기술개발 및 수요창출을 지

기업과 연구기관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수소상용차 생산기지화 및 수 소 모빌리티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와 연계 한 그린 수소 융복합 실증단지를 조성

전북도는 신산업 발굴・육성에 전력 을 다하는 동시에, 기존 주력산업의 고도화 · 다각화를 통해 산업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세 회복에도 매진한다.

농생명·탄소소재 기반으로 지역강 점이 있고 시장 및 기업경쟁력이 상대 우위에 있는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바이오 융복합산업 발굴전략 기본용 역('19.1~8월)'추진 중으로, (先)바이 오 특화산업 역량강화, (後)제약바이 오 등으로 시업 영역을 확대할 방침이

정부사업으로 확정된 '상용차 혁신 성장 및 미래생태계 구축 시업을 통해 전장부품 연구개발 확대 지원 등 전북 이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 변화의 견인 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청사진을 그러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래 지향적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산업구조 개편 방안을 중 장기 계획에 반영하고 비전 및 산업별 육성전략 수립·추진 등 산업구조 개 편을 가속화한다.

'전북 산업구조 개편 방안'은 올해 2 월에 마무리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 으로, 전문가 의견수렴 등 공론화 과 정을 거쳐 전북과학기술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확정된 개편 방안은 산업 분야 중 장기 계획('20~'24년)인 '전라북도 혁신성장산업 육성 계획'에 반영돼 실행과제 및 세부사업 이행 등에 대 해 체계적인 관리와 접검이 이루어 /김진성 기자

토 · 일요일 신문 쉽니다.

